

## 한국여성의 '인적자본'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박수미\*\*

이 연구는 개인들의 노동공급행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 중 하나인 '인적자본론'이 여성들의 취업특성을 설명하는 데에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여성들이 지닌 인적자본이 여성들의 취업결정과 취업직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가설은 크게 두 가지로서, 첫째는 여성들의 인적자본이 여성들의 취업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이며, 둘째는 여성들의 인적자본이 여성들의 취업직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이다. 한국사회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들이 지닌 인적자본이 여성들의 취업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이 연구의 주된 가설이다. 하지만 일단 취업을 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인적자본이 취업직종에서는 상당한 설명력을 지닐 것으로 여겨져 이러한 내용으로 두 번째 가설이 구성되었다.

분석 결과, 가설에서 설정한 대로 인적자본론의 이론적 예측과 달리, 여성들의 취업결정에 인적자본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혹은 정반대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중요한 인적자본 중의 하나인 '학력'의 효과를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뚜렷하게 일률적으로 취업률이 낮아짐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밖에, 여성들이 지닌 자격증이나 취업훈련 여부, 또 건강 상태 등과 같은 인적자본 요소도 여성들의 취업결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적자본은 여성들의 취업직종에는 상당한 정도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분석결과도 실질적인 내용을 따져보니 그다지 유효한 영향 효과라고 보기 어려웠다. 취업직종과 연령 및 학력과의 회귀분석 결과 여성 취업직종의 열악한 상황을 재확인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사회 여성들의 인적자본은 여성들의 취업 결정 및 취업유형에 의미있는 변수가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핵심 단어:** 여성의 취업률, 여성의 취업직종, 인적자본론, 여성의 학력효과

\* 이 글은 「2001년 한국인구학회 전기학술대회」 발표문을 수정한 것임.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 I. 문제 제기

산업화 이후 공·사 영역 분리가 진행되면서 성별분업이 공고화되었다. 이로써 가정주부로서의 여성의 이미지가 확산되고 '일하는' 여성의 이미지는 점차 가시권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몇 십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벌어진 괄목할 현상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이다. 최근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68년에 38.2%, 1980년에 42.8%, 그리고 2001년에 48.8%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경제활동 참가자 중 미혼여성의 비율은 1980년 50.8%였던 것이 2001년에는 48.1%로 낮아진 반면, 기혼 여성의 비율은 동기간에 40.0%에서 50.2%로 증가하여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가 더욱 두드러진다(한국여성개발원, 1998; www.kwdi.re.kr). 많은 여성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미혼여성보다는 기혼여성의 생산활동 참여율이 더 높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 사회에서만 아니라 선진 산업사회에서도 공통적으로 경험되는 현상이다(방하남, 1996, 93쪽; Drobnic, 1999).

일반적으로 여성의 취업 형태는 20대 초반부터 20대 중반까지 증가하다가 결혼과 출산이 집중되는 시기인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 급격히 감소하고, 출산을 마무리짓는 시기인 30대 중반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는, 이른바 M자형 취업곡선으로 설명되어 왔다. 즉 여성의 취업유형은 남성의 취업유형과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닌다. 그러한 차이의 가장 큰 요인은, 여성의 취업이 여성의 '생애과정', 특히 그 여성이 속한 가족의 '가족주기'에 의해서 매우 민감하게 규정받는다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서구의 경험적 연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험적 연구들도 이와 같은 기존의 M자형 취업 곡선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Bianchi & Spain, 1986; Desai & Waite, 1991; 금재호, 2001; 통계청, 1998). 즉 결혼과 출산이 집중되는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의 여성 취업률이 과거에 비해서 별로 감소되지 않음으로써 취업곡선의 굴곡이 평평해지고 있으며, 취업률 감소 시기도 더욱 늦춰져서 30대 초반에 취업률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여성취업곡선의 변화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으로 인한 취업 시점의 상승 및 이것과 연관되어 결혼 연령

과 초산 연령이 높아짐으로 인한 취업단속(就業斷續) 시점의 상승에 그 첫 번째 원인이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여성취업유형의 변화는 단순히 기존의 취업유형곡선을 시간축을 따라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것과는 달리, 취업유형곡선 자체의 변화도 수반하고 있다. 즉 여성의 노동공급구조 자체에도 변화가 일고 있는데, 그것은 과거에 비해서 여성의 취업곡선이 여성의 생애과정 또는 가족주기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 것처럼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외견상, 여성의 취업유형이 남성의 취업유형과 근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취업유형과 남성취업유형간의 중요한 차이점으로 드는 것이, 취업연속성 여부이다. 남성취업유형이 생애과정을 거쳐 완만하게 취업연속성을 보이다가 퇴직연령을 중심으로 급감하는  $\cap$ 형인데 비해, 여성취업유형은 생애과정에 따라 지속적인 노동시장에의 진입과 퇴장을 반복하는 '취업단속성'으로 특징지워진다(Moen, 1985).

신고전경제학파의 '인적자본론'은 노동력 공급자의 측면에서 취업행태를 설명하는 주요한 이론이다. 이 이론은 성별분업을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이와 같은 전제 위에서 남녀 노동자들의 경제활동 행위 유형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여성취업유형의 변화를 취업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성별 취업유형의 차이가 사라지는 지표로 볼 수 있다면, 여성의 노동력공급행위도 기본적으로 남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적자본론의 범위내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취업의 유형 변화를 곧바로 여성의 '취업단속성'이 점차 사라짐으로써 여성 취업유형이 남성 취업유형과 동일해질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자칫 현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Goldin, 1990). 왜냐하면 주로 이러한 연구결과가 일시점(一時點)의 취업여부만을 다루고 있는 횡단적인 자료에 기반하여, 여성취업의 총량에 대한 정보만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여성집단내에는 취업 지속성과 관련하여 매우 이질적인 하위 집단들이 뒤섞여 있으며, 집단내의 개인들도 생애과정에 따라 매우 빈번한 '경제활동상의 지위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김영옥, 1999). 그런데 횡단적인 자료를 근거로 한 정태적 연구에서는, 여성들의 노동시장참여 특성인 빈번한 노동시장에의 진입 및 퇴장 과정을 제대로 포착해내기 어렵다. 그래서 그 동안 여성의 생애에 걸친 노동참가 유형은, 일생 동안 비경제활동자로 지내는 여성들, 남성과 같이 취업연속성을 지닌

여성들, 결혼이나 출산이후 영영 노동시장을 퇴장하는 여성들, 전형적인 M자형 취업경력을 지니는 여성들이 혼재되어 있을 것으로 막연히 짐작되어 왔다. 여성노동의 다양한 경로를 규명하기 위해서 종단적 분석이 요구되며 이것을 가능케 하는 종단 자료의 축적과 함께 여성노동에 대한 종단적 연구들이 점차 축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비판의 소리가 한국사회의 여성취업실태를 설명하는 데에는 아직도 시기상조임을 밝히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서구사회의 경험적 연구결과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횡단적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아도 여전히 상당한 정도의 M자형 취업곡선이 유지되고 있으며, 인적자본론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현상들이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종단적 자료에 대한 연구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고 우선 횡단적 자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인적자본론의 이론적 전망이 한국사회 여성취업유형에 대해서 갖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인적자본론(human capital theory)'에 대한 비판적 검토

신고전학과 노동경제학의 노동력 공급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일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의중임금(意中賃金, reservation wage)'과 '시장임금'의 비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이때 '의중임금'이란 "노동자가 노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여가의 가치"로 계산될 수 있다. 인적 자본론이 가정하는 노동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으로서, 임금은 순수하게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노동자가 지닌 '인적 자본'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인적자본'은 노동력 공급자의 노동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공식적 교육, 직업 훈련, 직업 경력, 건강, 지리적 이동 가능성" 등(Becker, 1981; Schultz, 1974; Bryant, 1990)을 가리킨다. 인적자본요소는 노동생산성의 지표이기 때문에, 모든 노동력 공급자들은 수요·공급의 원칙 아래 인적자본량에 비례하여 임금이 결정된다. 노동력 공급자는, 자신의 인적자본량에 따라 예상되는 시장임금과, 시장노동을 함으로써 포기되는 여가의

가치인 의중임금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노동시장에 참여할지를 결정한다. 뿐만 아니라 노동력 공급자의 인적자본요소는 노동시장의 참여 여부만이 아니라, 노동시장 입직(入職)시의 취업직종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개인들은 자신의 인적자본량을 늘리기 위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함으로써 기대수익률을 높이고자 한다. 개인들은 가장 대표적인 인적자본요소인 교육과 직업 훈련을 통해 자신의 인적자본량을 늘려 가려 하지만 소요 비용을 부담하고 현재의 소득을 희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성의 노동력 공급 행위를 설명할 때 인적자본론적 논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의중임금-시장임금들의 선택대안이 성별로 다르다는 사실이다. 남성은 기대 임금을 고려하여 '시장노동'과 '여가' 중에서 경제활동 여부를 결정하는 반면 여성들, 특히 기혼여성들은 '가사 및 자녀양육'과 '시장노동' 그리고 '여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Mincer, 1962; Becker, 1981). 이 논의에 따르면, 가사전담자인 여성이 시장노동을 선택할 경우에 여성의 시간 가치가 높아지는 생애과정 단계에서 유지하고 있던 시장노동을 포기하거나 혹은 시간제 근무로 전환하는 것이 가족단위의 합리적 경제행위가 된다. 이렇게 인적자본론에서는, 어린 자녀가 있는 시기와 같이 여성의 시간가치가 높아지는 시기를 기점으로 개별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남녀간에 성별화된(sex-differentiated) 취업전략을 취하는 것이 당연시되며 이것은 기존의 성역할을 전제하는 데에서 비롯된다(Bryant, 1990). 둘째,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인적자본이 저활용되는 사실은 인적자본요소에 대한 투자행위를 성별화시킨다. 한국사회에서 고학력 여성들의 낮은 취업률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투자행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성별로 구분되는 교육투자 행위를 하게 한다. 혹은 동일한 인적자본요소가 성별로 다른 기대효과를 낳는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이미정(Lee, 1996)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교육수준은 남성에게 경제활동 참여라는 직접적인 보상 효과를 지닌 반면, 여성에게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와의 결혼이라는 간접적인 보상 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론은 단일한 완전경쟁시장을 상정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 이전의 규범적, 제도적으로 규정되는 성별 차이를 논의 내용 속에 포함시키지 못하거나 혹은 논의 전개에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다른 교육투자 수익률이 기대되는 등 성역할에 대한 강한 사회적 규범이 있는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유형을 설명하는 데 인적자본론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여성의 노동력공급유형에 대한 인적자본론의 설명적 한계는 국내외의 많은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서 지적되어 왔다(우리사회연구학회, 1998: Lee, 1996: Choi, 1994: Chang, 1997: 어수봉, 1996: 한국여성개발원, 1997: 양승주, 1995: 이재열, 1996: 이현송, 1996: Beechy, 1978). 즉 여성의 교육 수준과 여성의 취업률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밝혀지지 않거나, 심지어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밝혀진 경험적 연구들이 많다. 선행 연구들의 경험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교육 수준, 자격증 유무, 직업 훈련 유무 등의 인적 자본은 남성의 경우와 같이, 노동시장 참여율과 참여 유형에 정적인 상관 관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여성의 경우, 동일한 인적 자본 요소가 여성의 생애과정 단계에 따라서 혹은 가족 구조적 특성 등과 같은 요소들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가 있는 시기에 자녀의 가치에 대한 관념이 여성의 계층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고학력 여성들일수록 경력중단율이 높다는 연구들이 있다.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여부가 자신의 '임금효과'보다는 배우자나 가족의 '소득효과'에 의해 설명되는 변량이 크다는 연구들도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안적 설명이 요구된다는 점을 말해 준다.

첫째, 동일한 인적자본요소가 여성의 생애과정단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는 사실은 여성취업에 대한 '생애과정적 접근(life course approach)'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준다. 경력단절을 특징으로 하는 여성노동의 특성은 낮은 노동시장 진입 결정 요인에 대한 규명을 요구한다. 생애과정단계에 따라 여성들의 취업이행 요인들이 구별된다면, 노동시장 밖에 선행하여 여성노동 특성을 규정하는 경제외적 요인들이 논의 내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가 생애과정단계에 따라 변화한다는 사실은, 여성을 둘러싼 가족 또는 남편의 특성이 여성취업에 대해서 갖는 중요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성노동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가

족 또는 남편의 규정력을 분석함으로써 여성의 부가적 노동자로서의 성격 여부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인적자본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여성취업의 특성과 생애과정적 접근의 설명 변량이 많다는 사실은 여성노동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적자본론에서 논의 전개 전제로 삼았던 '성별분업'은 여성노동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 핵심적으로 분석될 대상이다. 또한 '성별분업' 관념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므로 여성노동에 대한 규범적·제도적 측면의 국가간 차이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드로브닉 등(Drobnic, Blossfeld & Rohwer, 1999)은 미국여성과 독일여성의 생애과정에 따른 취업유형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 미국여성의 경우는 인적자본론의 기회-비용 이론들에 부합되는 반면, 독일여성의 경우는 이와 배치되는 취업유형을 보였다. 드로브닉 등은 이와 같은 연구결과의 이유를, 독일사회의 성별분업에 대한 강한 사회적 규범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정부의 세제정책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드로브닉의 연구결과는 독일보다 더욱 강한 성규범 문화가 있는 한국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지금까지 여성노동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 인적자본론이 갖는 이론적·현실적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적 논의들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물론 지금까지의 논의는 노동력 공급자의 측면에 국한된 것으로서 노동력 수요의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 연구는 노동력 공급자의 측면에서 인적자본론이 한국사회 여성의 취업행위를 설명하는 데 많은 한계점이 있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서구 선진사회에서 여성취업행위를 설명하는 데 인적자본론이 유용한 틀로 부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사회 여성취업의 경우도 점차 인적자본론적 설명틀이 유효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전망에 대해서 횡단적 분석만을 통해서도 한국사회 여성노동의 현실은 매우 열악하여 인적자본론적 논의와 배치되고 있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자 한다. 그런데 인적자본론의 이론적 틀이 여성의 취업률에는 그다지 높은 설명력을 지니지 않는 반면, 일단 취업한 여성들의 경우 여성의 취업직종에서는 상당한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직 여성의 경우 전문직 남성에게 비해 고학력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 전문직 여성들의 취업지속성이 가장 높다는 점 하는 사실들은 여성의 인적자본이 여성의 취업결정

에는 그다지 유효한 자원이 되지 못하는 반면, 취업직종에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는 예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선 우리 사회 여성의 인적자본이 여성의 취업률과 취업직종에 어떠한 효과를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인적자본론의 논의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 III. 연구가설과 연구방법

#### 1. 연구가설

선행연구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노동력 공급자의 경제활동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본으로 '연령'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적자본론에서 '연령'은 '취업경력'의 대체 변수로 활용된다. 이와 동시에 '연령'은 특히 여성에게 가족책임의 지표로도 사용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취업경력이 취업률 자체에 그다지 유효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기혼여성에 대한 제한적 취업기회라는 노동시장의 수요적 측면을 감안하여 젊은 연령층일수록 취업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젊은 여성일수록 학력이 높고 또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라 취업직종은 사무직 종사자<sup>1)</sup>의 비율이 높을 것이다.

가설 1: 최근 연령코호트일수록 취업률이 높다.

최근 연령코호트일수록 사무직 종사자의 비율이 높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인적자본변수인 '학력'이 여성들의 취업률 및 취업직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이다. 최근에 학력변수가 여성의 취업유형에

1) 인적자본이 취업직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조작된 종속변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업직종은 화이트 칼라인 '전문·행정직 종사자'와 '사무직 종사자', 블루 칼라인 '판매·서비스직'과 '생산·운수·노무'직으로 이분되어 재구성되었으며 전자를 편의상 '사무직 종사자'로 명명하고 후자를 '비사무직 종사자'로 명명하여 준거집단으로 삼았다. 이 두 직종은 직업 위세상 위계 관계에 있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농림직'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어느 정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심스러운 판단이 나오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의 고학력여성의 저조한 취업률은 여전히 공고할 것이라고 예측해본다. 1997년 여성취업에 대한 횡단적 자료를 분석해보아도 한국여성의 경우 투자된 교육의 효과는 노동시장 진입과 진입시의 직종 및 종사상의 지위에서는 나타나지 않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서구 선진 사회에서 여성취업에 미치는 학력변수의 정적 효과가 확인되면서 이 연구결과가 여성취업의 차별적 현상들을 은폐시킬 우려 때문에 종단적 분석에 대한 논의가 심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 여성취업의 실태는 횡단적 분석만을 통해서도 여성취업에 대한 학력 변수의 부(-)적 효과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설 2: 학력은 여성들의 취업률과 선형적 관계를 지니지 않는다.

학력이 높을수록 사무직에 종사할 확률이 높다.

다음으로 인적자본의 한 요소들로 여겨지는 자격증, 취업훈련, 건강 등의 변수가 여성들의 취업률과 취업직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내용으로 가설을 설정해 보았다. 여성의 취업 행태는 여성 개인의 인적자본보다는 가족의 생애주기나 부족한 가계비 보충의 필요성 등과 같은 가족배경적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건강' 등의 변수는 그다지 취업결정에 유의미한 고려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또 일반적으로 여성의 취업직종이 주로 직업적 위세가 낮은 직종이거나 2차노동시장의 성격이 강한 직종이기 때문에 자격증, 취업훈련 등의 인적자본 요소도 그다지 여성들의 취업결정에 유효한 설명력을 지니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취업직종에 따라서는 특정한 자격증, 취업훈련 등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가 여성취업특성 내부에서 적은 비중을 차지할지라도 자격증, 취업훈련, 건강 등의 변수가 여성들의 취업결정에 그다지 유효한 설명변수가 아닌 데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직종에는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지닐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3은 위의 인적자본 요소가 여성의 취업률과 취업직종에 대해서 각각 상반되는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구성해 보았다.

가설 3: 자격증, 취업훈련, 건강 변수는 여성들의 취업률에 정적인 효과를 지니지 않는다.

자격증, 취업훈련, 건강 변수는 여성들의 취업직종에 정적인 효과를 지닌다.

여성의 인적자본요소에는 가족배경변수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가족배경변수로서 남편의 학력, 직업, 소득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연구의 분석대상에는 미혼자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서 분석 모형에 남편변수를 넣을 수가 없었다. 가족배경변수 가운데 먼저 <가설 4>는 아버지의 학력과 직업이 여성의 취업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아버지의 인적자본요소가 자녀인 딸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따져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가설 5>는 조사대상 여성들이 15세일 때 어머니가 취업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취업경험 어머니를 둔 여성의 취업행위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다. 로젠펠드(Rosenfeld, 1978)의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의 인적자본요소가 아들의 취업행위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어머니의 인적자본요소가 딸의 취업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성역할 사회화'(김은경, 1996)의 관점에서 여성의 일에 대한 태도와 행위를 결정하는 데 어머니의 취업경험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설 5>를 통해서 한국사회 여성들에게도 어머니의 취업경험이 자녀인 딸의 취업행위에 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 4: 아버지의 학력과 직업은 여성들의 취업률에 정적인 효과를 지니지 않는다.

아버지의 학력과 직업은 여성들의 취업직종에 정적인 효과를 지니지 않는다.

가설 5: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여성들의 취업률에 정적인 효과를 지닌다.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여성들의 취업직종에 정적인 효과를 지니지 않는다.

## 2. 연구방법

### 1) 자료

분석에 사용된 통계자료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1997년에 실시된 「제3차

여성취업실태조사 데이프」이다. 이 자료는 1985년에 수행된 1차 조사와 1991년의 2차 조사에 이은 것으로 취업, 실업 및 비경제활동상태 등 여성의 경제활동상태별 특성, 그리고 취업력 변화과정 등 여성의 취업실태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어, 여성 노동인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자료 가운데 본 논문은 취업력 자료를 제외한 횡단적 자료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조사는 전국의 15세 이상 65세 이하 여성 표본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분석 대상의 수는 조사가구가 3,196가구, 조사가구를 통해 조사된 가구원수는 10,421명, 조사 대상 여성은 3,639명이다. 이중 본 논문에서는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중 학생을 제외한 총 2,978명의 여성을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자를 시부 여성으로 제한한 이유는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므로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시부 여성의 취업양상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나므로 본 논문의 연구 주제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2) 분석변수와 분석방법

분석에 포함되는 독립변수는 ① 연령 ② 학력 ③ 자격증 소지 여부, 직업훈련 여부, 건강 상태 ④ 아버지의 직업, 아버지의 학력 ⑤ 어머니의 직업 등<sup>2)3)</sup>이다. 이 변수들은 각각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재부호화되어 각 집단간의 차이를 보다 분명히 드러내고자 했다. 독립변수 내부의 집단간 차이뿐만 아니라,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 자체의 영향력은 상이한 독립변수로 구성된 여러 개의 모델을 대상으로 한 모델 비교를 통해서 검증할 것이다.

독립변수의 정의와 기초 통계량은 < 표 1 >에 제시되어 있다.

2) 슈츠(Schultz, 1974)는 인적자본 요소로서 ① 보건시설과 용역, 즉 개인에게 있어서는 (정서적, 신체적) 건강, ② 직업 훈련, ③ 공식적인 교육, ④ 노동시장 및 경제체제에 대한 정보의 양 ⑤ 직업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개인과 가족의 지리적 이동 능력 등을 대표적인 것으로 들고 있다.

3) 여성의 노동참여유형을 설명하는 중요한 인적자본 중의 하나가 '남편의 소득'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조사대상이 미혼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남편과 관련된 변수들을 활용하지 못했다.

< 표 1 > 경제활동참가 요인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정의와 기초통계량

변수	변수의 내용	평균	표준편차
연령	10대	0.03	0.15
	20대	0.25	0.42
	30대	0.31	0.45
	40대	0.22	0.39
	50대	0.14	0.33
	60대	0.05	0.21
학력	무학	0.04	0.17
	초등학교졸	0.15	0.34
	중학교졸	0.17	0.36
	고등학교졸	0.45	0.49
	전문대졸 이상	0.19	0.38
자격증 소지 여부		0.26	0.44
직업훈련 수강 여부		0.06	0.24
건강	직업 생활 곤란	0.12	0.32
	쉬운 일은 가능	0.16	0.36
	일의 제한 없다	0.73	0.44
아버지 직업	전문/행정/사무	0.09	0.28
	판매/서비스	0.22	0.41
	농업/임업/수산업	0.35	0.48
	생산/운수/단순노무	0.18	0.38
	무직	0.16	0.39
아버지 학력	무학	0.18	0.35
	초등학교졸	0.31	0.44
	중학교졸	0.20	0.37
	고등학교졸	0.21	0.38
	전문대졸 이상	0.10	0.29
어머니 직업	전문/행정/사무	0.01	0.09
	판매/서비스	0.15	0.35
	농업/임업/수산업	0.39	0.49
	생산/운수/단순노무	0.08	0.27
	무직	0.37	0.47

'연령'은 10세 간격으로 나누어 10대부터 60대까지 여섯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각각 더미변수<sup>4)</sup>로 재부호화하였다. '자격증' 변수는 종류에 상관없이 '자격증 소지'는 '1'로, '자격증 미소지'는 '0'으로 부호화했다. '직업훈련' 변수는 직업훈련의 횟수와 상관없이 취업전에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있으면 '1'로, 취업전에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없으면 '0'으로 부호화했다. '아버지의 직업' 변수와 '아버지의 학력' 변수 및 '어머니의 직업' 변수는 모두 조사 대상자의 나이가 15세일 때의 사항이며, 각각 다섯 개의 범주로 재부호화했다.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여성의 ① 경제활동상태<sup>5)</sup>와 ② 여성의 취업직종, 이렇게 두 가지이다. 여성의 취업 여부가 첫 번째 종속변수로서, 취업자는 '1'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자를 포함한 非취업자는 '0'으로 분류하였다. 두 번째 종속변수인 여성의 취업직종은 '전문/행정직'과 '사무직'은 '1'로, 나머지 직종 즉 '판매/서비스직'과 '생산/운수/단순노무직'은 '0'으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는 종속변수가 두 개의 값을 가질 때 적당한 로짓 분석(logit analysis)방법으로 분석했다. 두 번째 종속변수인 '여성의 취업직종'에 대한 분석은 위에서 말한 로짓분석 이외에 보다 심층적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변수들간의 회귀분석 및 카이스퀘어 검증 등의 연구방법을 병행할 것이다.

연구모형은 모델비교를 통해서 독립변수의 설명력을 살펴볼 수 있도록 4개의 범주로 구성된 독립변수들을 하나씩 추가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구성된 4개의 모델을 비교함으로써 개별 독립변수들 내부의 집단간 차이뿐만 아니라, 독립변수 자체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해볼 수도 있다.

4) 더미변수로 처리했다는 것은 그 변수의 값을 지니면 '1'로, 그 이외의 경우는 '0'으로 처리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10대 더미변수는 분석대상이 10대이면 '1'로, 10대 이외의 모든 연령층은 '0'으로 부호화된다.

5) 이 글의 분석변수인 '경제활동상태'는 '취업'과 동의어로 사용한다. '경제활동상태'는 ILO 권고안에 따라 조사기간으로 지정된 1주간의 경제활동상태를 노동력접근법에 의해 규정한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자료도 이 노동력 접근법에 따라 경제활동상태를 규정했으며, 경제활동자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선 경제활동상태를 취업자와 비취업자로 구분하여 재부호화했다. 그 이유는 첫째 여성의 경우, 실업자의 상당수가 비경제활동자로 전환된다는 경험적 사례들이 많고, 둘째, 이 조사 후반부에 있는 생애사 자료의 경우 실업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취업·비취업간의 구분으로 조사대상 여성들의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했기 때문에 그 자료와의 통일성을 피하고자 해서이다.

#### IV. 분석 결과

##### 1. 여성의 인적자본과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한 분석결과

조사대상자의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는 다음의 < 표 2 >와 같다.

우선 모델 비교의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 변수에 ‘교육정도’ 변수를 추가한 모형2가 모형1보다 나은 모델로 나타났다. 또 모형2에 ‘자격증’, ‘취업훈련’, ‘건강’ 등의 변수가 추가된 모형3도 훨씬 설명력 있는 모델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설명변수들이 종속변수에 인과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 직업’, ‘아버지 학력’, ‘어머니 직업’ 변수를 추가한 모형4는 모형3보다 나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차이는 매우 근소하다. 따라서 ‘부모의 인적자본’ 변수도 자녀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직종에 인과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설명력은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로짓분석 결과를 독립변수별로 가설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2 >에서 확인해볼 수 있듯이 조사대상자들은 <가설1>에서 설정한 대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로짓계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령과 경제활동참가는 비선형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경제활동참가에 있어서 전연령층이 모두 준거집단인 60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분석결과는 4개의 연구모형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통계적 유의도 수준도 상당히 높다. 따라서 연령이라는 변수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준거집단인 60대 여성들에 비해 10대 여성들의 취업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20대, 40대, 30대, 50대의 순서로 취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때 한 가지 유의할 것은 10대 여성들의 높은 취업률은 10대 여성들 가운데 현재 학생인 사람들을 제외하고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들만을 조사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표본편기(selection bias)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즉 10대 여성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일찍 취업한 여성들만 조사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10대의 높은 취업률은 설명에서 제외하고 20대 이상 여성들의 분석 결과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로짓계수를 살펴볼 때, 가장 특기할 사항은 30대 여성들의 취업률이 20대나 40대 여성들의 취업률보다 낮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흔히 자녀출산 및 자녀양육 등의 가족관련부담이 가장 많을 것으로 짐작되는 연령대가 30대라고 하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연령별 취업률 유형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그들의 생애과정, 특히 가족주기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 조사대상자들의 취업유형은, 다소 완화된 형태이긴 하지만, 여성의 노동공급유형인 M자형 곡선과 유사한 노동공급유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취업경력이 설명 변수로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연령은 취업경력의 기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젊은층 특히 20대의 취업률이 가장 높고 이후 감소되는 경향은 여성들의 취업경력이 매우 단절적이거나 혹은 재취업시 취업경력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인적자본으로서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여성들의 인적자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학력 수준이 여성들의 취업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분석결과는 예측한 대로 인적자본론의 이론적 설명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률은 순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모형4를 중심으로 로짓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학 학력자'가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여서 '전문대졸 이상'보다 2.5배 가량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초졸 학력자'가 '전문대졸 이상'보다 2.4배 가량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중학교졸'은 1.7배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고등학교졸'은 '전문대졸 이상'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서구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매우 특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여러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도 특수한 것이다(Lee Mijeong, 1996: 방하남, 1996). 즉 한국사회 고학력 여성의 낮은 취업률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현상이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사회의 특수한 유교적 성규범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측면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져야만 규명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검토에서 밝혔듯이,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의 학력 효과는 취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보상보다는 결혼 등과 같은 간접적인 보상으로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다.

< 표 2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결과: 로짓계수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연령	10대	2.4873(.2795)***	2.8027(.2920)***	2.1704(.3145)***	2.1755(.3187)***
	20대	2.1121(.1532)***	2.3492(.1629)***	1.9576(.1752)***	1.9726(.1765)***
	30대	1.6267(.1491)***	1.8321(.1612)***	1.4923(.1737)***	1.5036(.1771)***
	40대	1.8770(.1559)***	1.9598(.1699)***	1.6583(.1815)***	1.6509(.1848)***
	50대	1.3329(.1701)***	1.2748(.1873)***	1.1709(.2045)***	1.1637(.2075)***
	(60대)	준거 범주		준거 범주	준거 범주
교육정도	무학		0.0641(.2658)	1.0137(.3004)***	0.8777(.3138)*
	초졸		0.2993(.1539)*	0.9604(.1752)***	0.8752(.1924)***
	중졸		0.0199(.1375)	0.4817(.1548)**	0.4012(.1685)**
	고졸		-0.3342(.1058)***	-0.1610(.1144)	-0.2191(.1220)
	(전문대졸 이상)		준거 범주	준거 범주	준거 범주
자격증	자격증 소지		0.3965(.1034)***	0.4096(.1045)***	0.4096(.1045)***
	(자격증 미소지)		준거 범주	준거 범주	준거 범주
취업훈련	취업전 훈련받음		17.4042(397.7)	17.4335(396.2)	17.4335(396.2)
	(취업전 훈련받지 않음)		준거 범주	준거 범주	준거 범주
진강	직업생활이 곤란하다			-2.1599(.2080)***	-2.1916(.2098)***
	쉬운 일은 가능하다			0.0245(.1172)	0.0288(.1181)
	(일의 제한이 없다)		준거 범주	준거 범주	준거 범주
가족배경:	(전문/행정/사무)				
아버지 직업	판매/서비스				0.0517(.1543)
	농업/임업/수산업				-0.3239(.2033)
	생산/운수/단순노무				0.1339(.1795)
	무직				0.3154(.2920)
아버지 학력	무학				0.5227(.1966)**
	초졸				0.3325(.1688)*
	중졸				0.1156(.1691)
	고졸				0.0178(.1602)
어머니 직업	(전문대졸 이상)				준거 범주
	(전문/행정/사무)				준거 범주
	판매/서비스				0.1003(.2446)
	농업/임업/수산업				0.1366(.2370)
	생산/운수/단순노무				-0.3785(.2723)
	무직				-0.0443(.2295)
표본수		2,978	2,978	2,978	2,978
d.f.		5	9	13	25
-2 L.L.		3791.997	3766.564	3308.188	3285.746
$\chi^2$		281.955***	307.388***	765.765***	788.207***

주: #  $p < 0.1$ , \*  $p < 0.05$ , \*\*  $p < 0.01$ , \*\*\*  $p < 0.001$ .

실제로 1985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여성취업실태조사와 비교해 볼 때 1997년엔, 여성취업에 대한 학력변수의 부정적인 효과가 많이 감소했다는 진단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차이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여진다. 여전히 한국사회에선 여성들의 취업에 미치는 학력변수의 부정적인 효과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여성들의 인적자본 요소 가운데 자격증, 취업훈련 여부, 건강 상태 등이 여성들의 취업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모형3과 모형4의 결과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가설 3>에 대한 해석은 모형4의 로짓계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분석 결과 자격증을 가진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1.5배 가량 취업률이 높았다. 조사 대상자들 가운데 자격증을 한 개라도 가진 여성들은 787명으로 전체의 26.4%이고, 이 가운데에서 자격증을 두 개 가진 여성들은 83명으로 전체의 2.8%이다. 비록 전체 조사대상자의 30%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이 자격증을 가졌지만,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격증이라는 인적자본은 분명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 자격증을 취업 전에 가졌는지, 아니면 취업 후에 가졌는지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인적자본으로서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엄밀한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미흡하다고 하겠다.

취업 전에 취업훈련을 받았는지의 여부가 여성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취업훈련이 여성들의 취업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건강이라는 인적자본의 효과에 대한 분석내용이다. 예상대로 분석결과, 직업생활이 곤란한 건강 상태의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서 8배 가량 더 취업률이 낮았다. 분명히 '건강'이라는 인적자본변수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주 쉬운 일은 가능하지만 별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여성들과 "매우 건강하여 일의 제한이 없다"고 응답한 여성들과는 취업률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직업 생활이 완전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건강'이라는 인적변수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에 그다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겠다<sup>6)</sup>. 그런데 건강이란 변수도 자격증 변수와 같

6) 조사자료를 살펴보면 '전문/행정'직의 경우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93.8%인 데 비해 '생산/운수/노무'직의 경우 응답비율은 60% 정도였다. 또한 "일을 할 수 없는 건강상태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판매/서비스'직과 '생산/운수/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전문/행정'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즉 건강 상태와 취업여부 및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의 노동강도 간에는 별다른 상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취업전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즉 이러한 건강 상태가 현재 취업하고 있는 취업직종 등에 의해서 결과된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위의 분석결과를 정확히 해석하기는 어렵다.

네 번째로, 여성들의 인적자본요소 가운데 부모의 인적자본 요소가 자녀인 여성들의 취업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모형4>는 <모형3>에 조사대상자들의 '부모에 대한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모델비교에 따르면 매우 미미한 정도의 추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에서 '아버지 직업' 변수와 '어머니 직업' 변수는 조사대상자들의 경제활동참가여부를 의미 있게 구별시키지 못하고 있다.

다만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그 자녀인 조사대상여성들의 취업률이 높아지는 것은 확인해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아버지 학력이 '무학'인 여성들이 아버지 학력이 '전문대졸이상'인 여성들보다 1.7배 가량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 아버지 학력이 '초등학교졸'인 여성들이 아버지 학력이 '전문대졸이상'인 여성들보다 1.5배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이것 역시 여성들의 인적자본이 높을수록 여성들의 취업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인적자본론의 예측이 빗나간 예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의 인적자본을 측정하는 간접적인 변수로 가족배경을 들고 있는데, 그것은 대개 부모의 학력과 부모의 직종이다. 그런데 분석결과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여성들의 취업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여성들의 취업여부가 인적자본보다는 가족수입의 필요성 등, 여타 가족환경의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가설5>에서 '어머니 직업' 변수는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자녀인 여성에게 취업에 대한 애착도를 높이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채택된 것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어머니의 직업은 자녀인 여성들의 취업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여성의 인적자본과 취업유형에 대한 분석결과

여성의 인적자본과 취업유형에 대한 분석은 먼저 < 표 3 >에 제시된 로짓분석 결과를 통해서 가설별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교육변수' 및 '연령변수'와 '취업유형'간의 관계를 회귀분석과 카이스퀘어 검증을 통해 보충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 표 3 >의 로짓분석 결과를 모형비교를 통해서 살펴보면, <모형1> 보다는 <모형2>가 더욱 설명력 있는 연구모형이고 <모형2>보다는 <모형3>이 더욱 설명력 있는 연구모형이다. 하지만 <모형4>는 <모형3>보다 추가적인 설명력을 지니지 않은 모형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 교육정도, 자격증 소지여부, 취업훈련여부, 건강 등의 설명변수들은 여성들의 취업직종에 인과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만, 부모의 학력이나 취업여부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인과관계를 갖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연령코호트에 따라서 여성들의 취업직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예상과 달리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무직 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조사자료의 연령별 사무직 종사자를 살펴보면 20대가 43.7%, 30대가 30.9%, 40대가 15.6%, 50대가 6.8%, 60대가 0.7%이다. 그런데 연령 변수만 포함된 <모형1>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모형에서처럼 교육정도를 포함한 다양한 인적자본 변수가 통제된 경우에 '연령'과 '사무직 종사여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동일한 인적자본을 지닌 경우에 사무직 종사자는 젊은층보다는 나이든 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이다. 결국, 여성들의 학력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과거에 비해 학력에 따른 보장된 취업직종의 틀이 점차 사라지고 더욱 다변화된 취업유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여성들의 학력수준이 취업직종에 대해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장 중요한 인적자본인 교육정도 변수가 여성의 취업률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교육정도 변수가 여성의 취업직종에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것은 이 절 후반부에 분석될 교육과 취업직종간의 회귀분석결과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며 그때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세 번째로 여성들의 인적자본요소 중 하나인 자격증, 취업훈련 여부, 건강 상태 등이 여성들의 취업직종에 대한 영향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예상과 달리 자격증 변수는 여성의 취업직종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다. 반면 취업훈련 변수는 여성의 취업률에는 별 의미있는 설명력이 없었지만 취업직종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아마도 여성들이 진입하는 사무직종이 일정 정도의 취업훈련을 요구하는 것에서 비롯된 점으로 짐작된다. 마지막으로 건강 변수는 취업직종과 그다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 > 여성의 취업직종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결과: 로짓계수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연령				
10대	-0.2636(.5187)	1.3109(.5683)*	0.8925(.5945)	0.9220(.6110)
20대	0.9130(.3368)**	1.2396(.3737)***	1.0408(.3939)**	1.0270(.4080)*
30대	0.4670(.3407)	1.5078(.3897)***	1.4252(.4101)***	1.4583(.4214)***
40대	-0.1095(.3561)	1.5902(.4171)***	1.6203(.4394)***	1.6169(.4517)***
50대	-0.1963(.3977)	2.4448(.4864)***	2.5266(.5146)***	2.5860(.5302)***
(60대)	준거 범주	준거 범주	준거 범주	준거 범주
교육정도				
무학		-16.6805(435.6)	-17.2110(709.3)	-17.1982(704.1)
초졸		-4.3330(.4624)***	-4.1331(.4804)***	-4.1344(.5077)***
중졸		-3.0632(.2880)***	-3.0064(.3082)***	-3.0660(.3310)***
고졸		-2.3084(.1799)***	-2.4347(.1903)***	-2.4922(.2075)***
(전문대졸 이상)		준거 범주	준거 범주	준거 범주
자격증				
자격증 소지			0.3057(.1688)	0.3037(.1728)
(자격증 미소지)			준거 범주	준거 범주
취업훈련				
취업전 훈련반응			1.5684(.2025)***	1.5602(.2049)***
(취업전 훈련받지 않음)			준거 범주	준거 범주
건강				
직업생활이 곤란하다			-1.3784(.8687)	-1.5545(.9195)
쉬운 일은 가능하다			-0.3860(.2578)	-0.3589(.2632)
(일의 제한이 없다)			준거 범주	준거 범주
가족배경:				
(전문/행정/사무)				
아버지 직업				
판매/서비스				-0.4488(.2716)
농업/입업/수산업				0.3407(.4168)
생산/운수/단순노무				0.0063(.3128)
무직				-0.5744(.5900)
아버지 학력				
무학				-0.0571(.3903)
초졸				0.1425(.3057)
중졸				0.0088(.3010)
고졸				0.5120(.2694)
(전문대졸 이상)				준거 범주
어머니 직업				
(전문/행정/사무)				준거 범주
판매/서비스				-0.3390(.4444)
농업/입업/수산업				-0.7046(.4900)
생산/운수/단순노무				-1.0358(.5358) <sup>†</sup>
무직				-0.1940(.4180)
표본수	2,978	2,978	2,978	2,978
d.f.	5	9	13	25
-2 L.L.	1386.506	1094.709	1019.655	1000.395
$\chi^2$	45.304***	337.100***	412.155***	431.414***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마지막으로 여성들의 부모의 인적자본요소가 자녀인 여성들의 취업직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아버지의 학력과 직업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성의 취업률 영향변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학력과 직업은 자녀인 여성의 취업직종에 아무런 통계적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취업률 영향변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학력과 직업도 자녀인 여성의 취업직종에 아무런 통계적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에서 여성의 인적자본변수와 여성의 취업직종에 대한 로짓분석결과를 살펴보았다. 이제 여성의 인적자본이 여성의 취업직종이나 종사상의 지위 등과 같은 경제활동참가유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인적자본 변수 중 대표적인 변수로서 '교육수준'변수와 '연령'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경제활동참가유형의 항목들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sup>7)</sup>을 한 결과가 아래 < 표 4 >이다. 이때 종속변수인 직업의 종류, 주당 근로시간, 취업기간, 취업자의 소득, 실업자의 기대임금, 비경제활동자의 기대임금 등은 연속변수로 취급되고 있다. 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업의 종류는 직업의 8개 범주<sup>8)</sup>를 활용했으며, 변수값이 작아질수록 직업의 위세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직업의 종류는 연령과는 무관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교육수준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직업의 위세도 함께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주당 근로시간과 취업 기간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다가 어느 시

7) 원칙적으로 회귀분석은 연속변수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지만, 이 절에서는 직업을 8개 또는 4개의 범주로 나누어 직업위세상 연속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간주하여 회귀분석을 해보았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데에 어느 정도 무리가 따르겠지만 개략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8) 직업의 8개 범주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본 연구의 특성상 농업어업직은 제외시켰다. ① 전문직 ② 행정관리직 ③ 사무직 ④ 판매직 ⑤ 서비스직 ⑥ 생산직 ⑦ 운수직 ⑧ 단순 노동직

점을 중심으로 하강하는 유형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주당 근로시간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짧아지고, 취업 기간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길어짐을 알 수 있다. 즉 교육수준이라는 인적자본은 여성의 취업 기간을 길게 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반면 평균 근로시간은 줄이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즉 인적자본이 여성의 근로형태에는 어느 정도 양(+)의 효과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취업자의 소득은 연령과 무관하게 나타났다. 반면 교육수준과 취업자의 소득은 유의도 10% 수준에서 의미 있는 관계로 나타났다. 비록 유의도 수준이 낮긴 하지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자의 소득도 높아진다. 하지만 이 모델의 F값이 1.686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교육수준에 따라서 취업자의 소득이 높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업자의 기대임금은 연령과는 무관하며 교육수준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비경제활동자의 기대임금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같이 높아지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 낮아지는 유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교육수준에 따라 비경제활동자의 기대임금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주목할 것은, 교육수준에 따라 늘어나는 기대임금이, 비경제활동자의 경우보다 실업자의 경우 더 높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인적자본론에서는 의중임금이 높은 고등교육여성들이 비경제활동자로 퇴장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본 조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자보다 실업자인 경제활동자의 기대임금, 즉 의중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소득효과는, 인적자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고 보인다.

< 표 4 > 각 독립변수에 대한 연령별·교육별 회귀분석결과: 회귀계수

독립변수	직업의 종류	주당 근로시간	취업 기간	취업자의 소득	실업자의 기대임금	비경제활동자의 기대임금
연령	0.0083(.0116)	0.6679(.2834)**	2.9667(.8452)***	5.8164(5.7307)	1.8224(2.8322)	10.2009(2.7700)***
연령*연령/100	-0.0233(.0153)	-0.7544(.3719)*	-1.9421(.1348)*	-6.4458(7.5049)	-0.0940(4.0209)	-11.5020(3.4314)***
교육수준	-0.5036(.0260)***	-4.1491(.6359)***	5.8819(1.9803)**	23.5337(12.9592)*	22.3329(6.7333)***	16.2395(5.5555)**
표본수	1240	1250	823	1046	97	409
d.f.	3	3	3	3	3	3
F값	163.234***	32.704***	29.582***	1.686	4.374**	7.352***
R <sup>2</sup>	0.2836	0.0729	0.0977	0.0048	0.1225	0.0515

이러한 예는 < 표 5 >에서 분석한 카이스퀘어 검증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즉 다른 종속변수들은 모두 교육수준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 데 비해, “주당 35시간의 일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교육수준이나 연령별로 차이가 없다. 즉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 의지는 교육수준이나 연령별로 차이가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간에 실제 취업률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취업희망 여성들을 수용할 만한 노동 시장이 갖춰져 있지 못하고 또 가족책임을 보완할 수 있는 노동 공급자의 조건도 형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유추는 다음의 < 표 6 >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비록 해당 조사대상자수가 46명이라는 적은 수이긴 하지만, 조사대상자들 가운데 일시적으로 휴직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휴직 사유를 물어본 결과가 < 표 6 >이다. 그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시적 휴직자의 절반 가량이 ‘일거리가 없어서’를 휴직사유로 들고 있다. 즉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휴직을 한 것이 아니라, 시장 여건에 따라서 강제된 휴직이 가장 주된 휴직 사유라는 것이다.

< 표 5 > 각 종속변수에 대한 chi-square 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35시간이상 일 희망	중사상 지위	직업의 종류(8범주)	직업의 종류(4범주)	임금지급 형태	아버지의 직업	아버지의 학력
연령(10세간격)							
표본수	176	1247	1249	1241	824	2176	2201
d.f.	5	20	40	15	20	15	20
$\chi^2$ 값	3.935	169.916***	402.472***	158.932***	129.811***	345.235***	409.006***
교육수준							
표본수	176	1247	1249	1241	824	2176	2201
d.f.	4	16	32	12	16	12	16
$\chi^2$ 값	4.124	71.886***	703.707***	498.828***	125.018***	589.183***	878.277***

그밖에 임금지급형태나 아버지의 직업, 아버지의 학력 등의 변수와 교육수준 변수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 표 5 >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아버지의 학력이 조사대상 여성들의 학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볼 때, < 표 2 >에서 밝혀졌던 아버지의 학력변수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 로짓분석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즉 아버지의 학력이 낮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았던 위의 분석결과에 따라, 여성들의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간접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 결과는 말 그대로 인적자본론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 표 6 > 조사대상 여성들의 일시적 휴직 사유

일시적 휴직 사유	도 수	백분율(%)
1. 회사가 문을 닫아서	1	2.2
2. 사업체(장사)를 그만두어서	13	28.3
3. 일거리가 없어서	20	43.5
4. 일시적 병(가족 포함)	5	10.9
5. 연가 또는 휴가	3	6.5
6. 일시적 집안일로	4	8.7
계	46	100.0

이상에서 살펴본 여성의 인적자본과 여성의 경제활동유형과의 관계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수준이라는 인적자본 변수는 어느 정도 여성의 경제활동유형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다지 낙관적이지만은 못하다. 예를 들어서 대학전공별로 '종사상의 지위'와 '직업의 종류'를 살펴보면, 전공별 차이를 거의 발견할 수 없으며, 또한 대학졸업이라는 학력에 걸맞는 직종임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이 둘간의 관계를 교차표로 구성한 것이 다음의 < 표 7 >과 < 표 8 >이다.

이 교차표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여성들의 15% 이상이 '종사상의 지위'에서 '시간제 근로자'임을 알 수 있다. 즉 대졸여성 가운데 취업한 여성들 중 상당수가 '시간제 근로자'나 '무급가족종사자'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시간제 근로자가, 노동강도나 노동시간은 풀타임 근무와 동일하면서, 임금이나 고용의 불안정성이란 측면에서만 시간제 근무 조건하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대졸여성의 높은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분명히 여성노동의 열악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 표 8 >에서 보면, 대졸 여성의 경우 전공과 무관하게 전체 취업자의 1/3 가량이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함을 알 수 있다. 전문직/행정직의 경우도 주로 의학적 출신과 사범계 출신의 경우만 제외하면 상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여성의 교육수준이 여성의 직종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졌다고 하지만, 그 관계의 정도는 남성취업자들의 경우와는 상당히 다른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 경우는 1997년의 통계청 조사자료를 근거로 살펴볼 때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즉 1997년 직업조사에 따르면, 남성 취업자의 31.5%가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한 반면, 여성 취업자의 45.8%가 같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더군다나 < 표 8 >의 경우가 대졸 여성의 경우만을 직종별로 살펴본 것이라고 할 때, 대졸여성 가운데 1/3 이상 여성들의 직종이 판매/서비스직이라는 사실은 말 그대로 여성들의 취업구조 특성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 표 7 > 조사대상 여성들의 대학 전공별 종사상 지위 교차표 (단위: 명(%))

	자영업자	풀타임근로자	시간제근로자	계
인문어문계(%)	11(15.49)	47(66.20)	13(18.31)	71
예체능계	6(16.67)	20(55.56)	10(27.78)	36
사회과학계	0(0.00)	26(81.25)	6(18.75)	32
이학계	7(14.29)	35(71.43)	7(14.29)	49
공학계	0(0.00)	13(100.00)	0(0.00)	13
의학계	3(12.00)	19(76.00)	3(12.00)	25
농림수산/기타	1(16.67)	5(83.33)	0(0.00)	6
사범계	6(12.77)	34(72.34)	7(14.89)	47
계	34(12.19)	199(71.33)	46(16.49)	279(100.00)

주: 사례수가 30명이 넘는 경우만 명시했음.

< 표 8 > 조사대상 여성들의 대학 전공별 직업의 종류 교차표 (단위: 명(%))

	전문직/행정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계
인문어문계(%)	19(25.67)	28(37.84)	27(36.49)	74
예체능계	11(29.73)	18(48.65)	8(21.62)	37
사회과학계	3(9.09)	9(27.27)	21(63.64)	33
이학계	7(13.21)	20(37.74)	26(49.06)	53
공학계	1(8.33)	4(33.33)	7(58.33)	12
의학계	24(75.00)	4(12.50)	4(12.50)	32
농림수산/기타	0(0.00)	2(33.33)	4(66.66)	6
사범계	26(53.06)	19(38.78)	4(8.16)	49
계	91(30.74)	104(35.14)	101(34.12)	296(100.00)

주: 사례수가 30명이 넘는 직종의 경우만 명시했음.

이러한 여성노동의 열악한 상황은 다음의 < 표 9 >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 표 9 >는 853명에 달하는 여성취업자들이 자신의 구직 경로를 밝힌 빈도표이다. 그것에 따르면 조사대상 여성의 절반 가량인 46.2%가 ‘이웃이나 친구의 소개’를 첫 번째 구직 경로로 꼽고 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구직 경로도 이와 유사한 ‘학교 소개, 추천’이나 ‘부모, 형제, 친척 알선’이다. 이렇게 취업여성들의 구직 경로는 친밀한 대면적 관계망 속에서 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 표 9 >에 나타난 구직 경로의 실태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여성들의 경우는 상당수가 애초부터 이른바 ‘노동시장분절론’에서 말하는 2차 노동시장 속으로 입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 표 9 > 조사대상자들의 구직 경로

구직 경로	도 수	백분율(%)
1. 부모, 형제, 친척 알선	95	11.1
2. 이웃이나 친구의 소개	394	46.2
3. 공공직업 소개소	11	1.3
4. 민간단체 혹은 민간직업소개소	10	1.2
5. 신문 광고	67	7.9
6. 학교 소개, 추천	99	11.6
7. 취직 시험	74	8.7
8. 자신이 직접(자기사업)	36	4.2
9. 가족, 집안일	5	0.6
10. 벽보	29	3.4
11. 기타	33	3.9
계	853	100.0

##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개인들의 노동공급행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 중 하나인 ‘인적자본론’을 중심으로 여성취업의 성격을 규명해 보았다. 여성들의

취업결정과 취업직종에 여성들이 지닌 인적자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인적자본론의 이론적 예측과 달리 여성들의 취업결정에 인적자본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적자본은 여성들의 취업직종에는 상당한 정도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분석결과도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다지 유효한 영향 효과라고 보기 어려웠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여성취업의 유형이 상당히 복잡하고, 또 여성집단 내부에도 취업유형에서 매우 이질적인 하위집단들이 혼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매우 제한적인 것이다. 특히 앞서서도 밝히 바와 같이 개인의 생애과정 속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인구학적 지위는 기혼여성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조사대상이 기혼여성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설명변수중의 하나인 “남편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빠져서 많은 쟁점들을 다루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또한 이 연구가 주로 ‘인적자본론’에 대한 비판적 검증에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생애과정 변수들이 여성들의 일에 대해서 갖는 함의가 상대적으로 빠져 있다. 이와 같은 한계들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여성취업유형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처럼 횡단적인 자료분석만으로도 우리 사회 여성들의 취약한 취업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이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의 인적자본이 저활용되는 것은 여성 개인의 입장에서는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관행의 문제이지만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자원의 낭비이다. 미국사회의 경우 80~90년대 장기 호황의 원인의 하나로서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꼽기도 하는 점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사회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이렇게도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 고학력 여성들을 필요로 하는 노동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과 둘째, 급속한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사회적 규범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한국사회에서 1970년대 후반까지 계속된 남성 노동의 과잉 현상은 고용주들로 하여금 여성노동력 특히 기혼여성노동력 고용에 전

혀 유인요소를 갖지 못하게끔 했다. 고학력 여성들을 위한 적절한 노동시장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성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집에 머무르는 것을 택했다. 게다가 성별 분업에 입각한 사회적 규범이 여전히 공고하여 여성에게 ‘결혼 장벽(marriage bar)’ 혹은 ‘모성 퇴직(maternity leave)’ 관행이 관철되고 있는 등 여성 노동력의 부가적·임시적 성격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최근에 한국사회에서도 고학력 여성노동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들이 대두되고 있다. 그 근거는 첫째,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의 이행이라는 환경적 변화가 여성에게 던지는 도전과 기회에 주목하는 것(장지연, 2001)이고 둘째, 2001년부터 40년간 지속되어 오던 출산억제정책을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한 점, 즉 장차 인구감소를 염려하여 대안적인 노동력으로서 양질의 여성노동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고학력 여성노동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가능케 하는 이와 같은 근거들은 그 자체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많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노동시장의 조건이 변화되는 것이 곧 남성노동과 다른 여성노동의 특성을 무화시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성노동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이전에 자리잡고 있는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여성취업유형의 특성이 보다 명확히 규명되어야 비로소 여성들의 인적자본이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들의 고유한 취업유형 특성은, 노동력의 수요적 측면과 공급적 측면이 결합되고, 횡단적 분석과 종단적 분석이 병행된 연구들이 더욱 축적됨으로써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금재호(2001),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성차별: 직종분리를 중심으로》, 제3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문. 미간행, p.307.
- 김영옥(1999), 《여성취업력의 동태적인 변화 분석》. 한국여성개발원 '98 연구보고서 pp.230-22.
- 김은경(1996),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권력작용의 효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 학위 논문.
- 나탈리 소콜로프(1996), 《여성노동시장이론》 이효재 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방하남(1996), "여성 노동력의 노동시장 전이과정의 동태적 분석: 미국 젊은 여성들의 경우" 《한국사회학》 30(봄). 93-124.
- 양승주(1995), "기혼여성의 노동공급행태분석" 《한국인구학》 18(1), 63-87.
- 어수봉(1996), 《한국의 여성노동시장》, 한국노동연구원.
- 우리사회연구학회(1999), 《현대사회와 여성》.
- 이재열(1996), "여성의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의 상호연관성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인구학》 19(1).
- 이현송(1996), "가족의 생애주기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한국사회학》 30(겨울). 759-777.
- 장지연(2001), 《고학력여성 경제활동의 국제비교》. 한국여성학회 2001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통계청(1998), 《경제활동인구연보》.
- 한국여성개발원(1997),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97 연구보고서.
- \_\_\_\_\_ (1999), 《1998 여성통계연보》 '98 연구보고서.
- 한국여성연구소(1999), 《새 여성학강의,》 동녘.
- Becker, Gary S.(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eechy, Veronica(1978), Women and Production: A critical analysis of some sociological theories of womens work. in *Feminism and Materialism*, ed. By Annette Kuhn and Ann Marie Wolp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Bianchi, S. & Spain, D.(1986), *American Women in Transition*,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 Bryant, W. Keith(1990),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Househol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ng, Jiyeun(1997), *Labor Force Withdrawal and Entry Surrounding First Childbirth of Married Women*, (Dissertation). Univ. of Wisconsin.
- Choi, Moonkyung(1994), *Lifetime Occupational Achievement of Female Workers: The Case of Korea* (Dissertation). Univ. of Chicago.
- Desai, S.. & Waite, L.J.(1991), "Women's Employment during pregnancy and after the first birth: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and Work Commit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 551-566.
- Drobnic, Sonja, Hans-Peter Blossfeld, Gotz Rohwer(1999), "Dynamics of Women's Employment Patterns over the Family Life Course: A Comparison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1).
- Goldin, Claudia(1990), *Understanding the Gender Gap: An Economic History of American Wome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ee, Mijeong(1996), *Women's Education, Work, and Marriage in Korea: Women's Lives Under Institutional Conflict* (Dissertation). UCLA.
- Mincer, J.(1962), "Labor-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A Study of Labor Supply" In H. Lewis(ed.). *Aspects of Labor Econom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oen, P.(1985),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Women's Labor Force Activity" in *Life Course Dynamics: Trajectories and Transitions, 1968-1980*. (ed.) by G. Elder Jr.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Rosenfeld, Rachel(1978), "Women's Intergenerational Occupational Achieveme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3(Feb.); 36-46.
- Schultz, T. W.(1974), *Economics of the Famil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he Effect of Korean Women's Human Capital on the Employments**

Su Mi Park

This research explores the effect of Korean women's human capital on their employments. The first research question is which Korean women's human capital increase the rate of women's employment. And then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is which Korean women's human capital affect the kind of women's job. In general, women's representative human capital indicates the educational attainment, the training of job skill, the certificate of job, and the their health. Human capital theorists insist that individual's human capital determines the participation into the labor market, the type of job and wage. But in Korea it is well known that highly educated women's rate of employment is very low. The method of this research is logit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cross-sectional data.

We find in this research that women's human capital does not have a positive effect on women's employment rate. The longer women's schooling period is, the less women's participation rates into the labor market are. Women's training of job skill, certificate of job and health does not also have a statistical significance on their employment rate. Besides women's human capital does not affect the kind of job. So human capital theory is very limited explanation on Korean women's economic activities.

**Key Words:** human capital theory,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women's educational attainment, women's type of job